

보도자료



문의: Angelia Rorison publicaffairs@usccr.gov

# 미국 시민권 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하다: 미국의 반 아시아 인종차별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

워싱턴, D.C. – 오늘, 미국 시민권 위원회는 *미국의 반 아시아 인종차별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광범위한 연구와 전문가 및 공개 증언을 바탕으로, 2019 년부터 2021 년까지 미국에서의 반 아시아 혐오 범죄의 증가를 분석하고, 연방 혐오 범죄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을 평가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크게 3 가지 영역을 분석합니다. 1) 아시아인 커뮤니티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사건 및 혐오 범죄에 관한 국가 동향 및 자료; 2) 혐오 범죄에 대한 지방 및 주 법 집행 기관의 예방 및 신고 관행: 3) 혐오 범죄 신고에 관한 연방 차원의 노력과 정책, 그리고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기소 및 집행 노력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미국 전역의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태평양 제도민들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라고 로셸 메르세데스 가르자(Rochelle Mercedes Garza) 위원장은 말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2019 년 이후 처음으로 양당 다수의 위원이 동의한,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과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견

데이터 수집 및 보고:

•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종합적 데이터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 NIBRS 데이터 수집으로의 전환이 일부 기관에서는 더딘 편입니다. 2021년 FBI 혐오범죄 데이터베이스 내 참여 기관의 수는 11,834 개로, 2020년 데이터에서는 15,138 개의기관이 참여한 것과 비교됩니다. 2021년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중 다수가 가장큰 관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 제안

#### 교육 및 파트너십:

- 검찰과 사법 당국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와 괴롭힘을 강력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 초동대응요원은 관할 구역에서 혐오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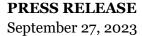
#### 언어 접근성:

• 연방, 주, 지역의 법 집행 기관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언어 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LEP, Limited English Proficient)의 중요한 결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심사의 일환으로 2023 년 3월 24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학계, 정책전문가, 법집행 전문가, 지지자, 영향력 있는 인사 등 주제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회는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서면 자료 또한 받았습니다.

###

미국 시민권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시민권을 자문하고, 연방 시민권 집행을 연간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기관입니다. 저희의 56 개 주 및 지역 자문 위원회는 주와 지역 차원의 시민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www.usccr.gov 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저희를 팔로우하세요.





Contact: Angelia Rorison publicaffairs@usccr.gov

## United States Commission on Civil Rights Releases Report: The Federal Response to Anti-Asian Racism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Today,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Civil Rights releases the report, *The Federal Response to Anti-Asian Racism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extensive research, expert and public testimony, the report assesses the rise in anti-Asian hate crimes in the U.S. from 2019 through 2021, and the federal role in preventing and enforcing federal hate crime laws.

This report examines three main areas: 1) **national trends and data** regarding the rise of hate incidents and hate crimes against members of Asian communities; 2) **local and state law enforcement's** prevention and reporting practices regarding hate crimes; and 3) **federal efforts and policies** that encourage greater participation in reporting hate crime incidents, as well as **prosecution and enforcement efforts** to prevent hate crimes.

"Our repor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ot only acknowledging the issue but also taking concrete actions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l-being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cross the nation," *said Commission Chair, Rochelle Mercedes Garza*.

Agreed upon by a bi-partisan majority of Commissioners, the report contains the following Commission specific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 a first since 2019:

#### **Findings**

Data collection & reporting:

- A major impediment to understanding the severity and magnitude of hate crimes against persons of Asian descent is the lack of comprehensive data.
- The transition to the NIBRS data collection has been slow for some agencies: for 2021, the number of participating agencies within the FBI hate crime database was 11,834, compared to the 15,138 participating agencies for 2020 data, and many of the agencies that have not submitted 2021 data are the largest jurisdictions.

#### **Recommendations**

*Training & Partnerships:* 

• Prosecutors and law enforcement should vigorously investigate and prosecute hate crimes and harassment against Asian Americans.

• First responders should be provided with training aimed at teaching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constitutes a hate crime in their jurisdiction.

#### Language access:

• Federal,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victim services need to identify critical deficiencies in 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programs for individuals who need language assistance.

As part of the examination, the Commission held a public <u>briefing</u> on March 24, 2023, where Commissioners and Commission staff heard from subject matter experts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academics, policy experts,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advocates, and impacted persons. The Commission also accepted written materials from the public for consideration in the final report.

###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is the only independent, bipartisan agency charged with advising the President and Congress on civil rights and reporting annually on federal civil rights enforcement. Our 56 state and territory Advisory Committees offer a broad perspective on civil rights concerns at state and local leve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ommission, please visit www.usccr.gov and follow us on Twitter and Facebook.